

아픈 친구들

지난주 가까운 친구 목사들의 소식을 모처럼 한꺼번에 듣게 되었다. 그런데 소식들이 그리 밝지 않았다. 한명은 암으로 고생하면서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중에 마지막 치료라고 한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 목사였다. 또 한 친구는 갑자기 가슴이 아파오는 심장마비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에 갔다가 이제 며칠 후면 정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한 명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지난 몇 달 동안 다리가 떨려서 진찰을 받아보니 혹시 파킨슨병은 아닌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약을 먹고 판정을 받아야 하는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가슴이 미어졌던 이유는 그 친구들 모두 앞으로 평생을 함께 하며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열심히 살며 사랑하며 나누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하나같이 아프게 되었는지 정말 안타까웠다.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다. 보통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한 기도가 많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입으로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는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에 주인 되심을 확신하며 친구들이 건강하여 함께 늙어 갔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멀리 있는 것만도 안타까운데 아프기까지 한다니 마음이 우울해 지려고 한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우울해 하지 않았다. 모두 자신의 상황을 잘 받아드리고 그 가운데 힘을 내며 열심을 버리지 않고 나름대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자 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았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2-13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모두 경험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러면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오히려 힘을 얻어야 할 것이다.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그만큼 거동이 불편해진다고 하여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이 건강의 아픔 가운데에서도 역사되리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친구 목사님들의 믿음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된다. 나는 펄쩍 뛰며 고통스러워하는데 막상 그 친구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갈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시작은 예수님이시고 아직도 영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끝이 아닌 천국으로의 과정이기 때문이다.